

광주시, 광산구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개소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2호점... 시민참여형 돌봄모델 확산 AI건강증정·사회적처방 상담 지원... 건강한 돌봄·지역공동체 공간 고광완 부시장 "건강 매개로 공동체·관계돌봄 확장하는 거점 되길"

시민 건강관리를 매개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서로 돌봄' 확산을 위한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이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31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을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영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이혜숙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은 2023년 수완동 수완문화체육센터에 문을 연 1호점의 운영 성과를 이어받아 개소하게 됐다. 1호점은 개소 이후 2년 여간 통합돌봄 대상자와 일반시민 3200여 명의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광산구 대표 거점형 공동체 돌봄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시민 누구나 건강을 매개로 돌봄과 사회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이다. 인공지능(AI) 건강장비 16종(기초, 근골격, 보행, 인지 등)을 활용해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국가건강검진자료 및 사전 문진 정보를 종합해 건강결과를 시민에게 즉시 제공한다. 건강증정 결과에 따라 ▲ 사회적 처방 상담 ▲ 건강활동가 매칭 ▲ 건강·운동 프로그램 ▲심리·정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처방 실행에는 복지·교육·간호 등 전문직 은퇴자로 구성된 건강활동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악 복용을 돕고, 일상 대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생활 속 건강관리 파트너로 활동한다.

광주시는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서로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쌍촌케어 돌봄교실,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거점형 공동체 돌봄'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돌봄의 궁극적 목적지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돌봄'에 있다"며 "건강을 매개로 관계돌봄을



확장하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가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복지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광춘 기자

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판 디자인은 주민협의회 대표단과 옥외광고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디자인단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역 디자인단은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새 간판 디자인은 내년 초부터 사업 지역의 특성 반영 및 거주민과 업주, 건물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간판 설치 작업은 오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다중이용시설물, 이제는 주소로 찾으세요

도민 편의·안전 확보위해 사물주소판 1천299개 설치

전라남도도는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사물주소판 1천299개를 신규 설치하고, 야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위치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물주소'는 건물번호가 없는 시설물에 고유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긴급 상황 시 소방, 경찰 등 구조기관에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지도 회사의 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바로 제공하고, 앞으로 티맵, 카카오맵 등과 같은 위치알림 서비스 기업과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민 이용이 잦은 무더위쉼터, 전기차충전소, 버스나 택시 승강장 등 공공 시설 총 23종 2만 4천20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1만여 개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무인민원발급기, 어린이보호 CCTV 등 총 6종 6천14개 시설에 사물주소를 추가 부여할 계획으로, 교통·안전·복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순사건법'으로 추진 중인 여순사건 인식 개선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133개 역사 유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 탑재한 웹서비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물주소판은 야외 공간에서도 각종 시설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알릴도록 도민 이용이 잦은 무더위쉼터, 전기차충전소, 버스나 택시 승강장 등 공공 시설 총 23종 2만 4천20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1만여 개의 사물주소

판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무인민원발급기, 어린이보호 CCTV 등 총 6종 6천14개 시설에 사물주소를 추가 부여할 계획으로, 교통·안전·복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순사건법'으로 추진 중인 여순사건 인식 개선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133개 역사 유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 탑재한 웹서비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물주소판은 야외 공간에서도 각종 시설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알릴도록 도민 이용이 잦은 무더위쉼터, 전기차충전소, 버스나 택시 승강장 등 공공 시설 총 23종 2만 4천20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1만여 개의 사물주소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봉선동 먹자골목에 있는 점포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남구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서 광주 지역에서는 봉선동 먹자골목 일대가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면서 "내년 초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

광주 남구, '봉선동 먹자골목 간판' 새롭게 바꾼다

행안부 주관 공모 선정, 내년 초부터 새 디자인 개발·설치 본격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및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대상 지역은 봉선동 먹자골목을 포함해 전남 광양시 광양숲솔구이 축제거리 등 전국의 17곳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봉선동 먹자골목 일대에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간판을 도입할 방침이다. 간판 개선 사업 지역 범위는 정일품 사거리를 중심으로 약 310m 구간이다.

특히 상권 주변에 간판이 난립하는 것을 차단하고,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포당 벽면 이용 간판을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골목진 지점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서는 간판 1개

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판 디자인은 주민협의회 대표단과 옥외광고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디자인단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역 디자인단은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새 간판 디자인은 내년 초부터 사업 지역의 특성 반영 및 거주민과 업주, 건물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간판 설치 작업은 오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첫 발행... 50만원을 41만원에

발행 첫날 '부끄머니 출장버스' 운영·SNS 이벤트 등 본격 홍보 돌입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11월 3일부터 본격 발행된다고 밝혔다.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광주은행 북구 소액 18개 지점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0만 원권을 4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18%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발행은 장기 경기침체와 수혜 이후 민생 회복을 위한 북구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으며, 조례 제정과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인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10월 말 기준 약 19,200여 곳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는 타 자치구 대비 월등히 많은 가맹점 수로, 북구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라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양중호 광주 북구 골목형상발전사업 상인회연합회 회장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은 이번 부끄머니 발행이 매출 증대

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18%라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발행 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 공식 SNS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사용 인증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은누리상품권·기프트콘 등을 제공하고, 발행 첫날에는 북구청 광장에 '부끄머니 출장버스'를 운영해 현장 발급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부끄머니를 발급받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부끄머니가 북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발굴해 소상공인과 주민의 생활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끄머니는 금 액 별(3·5·10·20·50만 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가맹점 현황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현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주민 참여로 건강한 탄소중립 도시 만든다"

동구,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아파트 방문 홍보

제도다.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는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동구는 더 많은 주민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제

도를 안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에 3곳의 공동주택이 참여해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했으며, 2곳의 공동주택이 추가 모집에 신청해 주민들의 제도 참여를 선도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1일 금부초등학교에서 '제2회 서구가족 다(多)함께 모여라(樂)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서구가족센터 주관으로 80가정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출신의 다문화가족이 자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족 단위 대항전, 연

서구 가족축제 '다함께 모여라' 소통·화합 한마당

다문화가족 등 80가정 참여... 가족 간 유대·존중의 가치 되새겨

령대별 게임, 대동놀이 등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장은 ▲나눔존(주민 참여형 플리마켓) ▲플레이존(문방구 체험, 인형뽑기, 팔씨름 대회) ▲홍보존(센터 사업 안내 및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 등)으로 구성된 주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나라별 전통의상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개회식을 보면서 다

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서구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며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가족이지만 이웃으로서 마음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혜경 광주서구가족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